

다큐멘터리 인터뷰 영상표현의 정량적 분석

Quantitative Analysis about Visual Image Expression of Documentary Interview

이익희

극동대학교 영상제작학과

Ikheui Lee(ihlee@kdu.ac.kr)

요약

미디어의 영상은 우리의 생활 속에 일부가 되어있으며, 사람들은 다양한 영상으로부터 정보를 얻기도 하고 판단이나 행동의 근거로 삼기도 한다. 특히 시사다큐멘터리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형성시키기도 한다. 영상을 통해서 전달되는 인터뷰는 얼굴 표정, 몸짓 등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신뢰감과 사실성이 뛰어나 강력한 전달 효과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인터뷰의 영상 표현법의 차이에 따라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메시지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인터뷰 영상의 표현법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인터뷰의 영상표현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위하여 국내 3개 방송사의 대표적인 시사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각각 5편씩 총 15편을 선택하여,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인터뷰 샷 전체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영상표현의 분석틀로 선행연구에서 공통으로 사용된 형태, 색, 움직임, 깊이를 인터뷰 영상에 적합하게 유형화하였다.

분석결과 시사다큐멘터리의 인터뷰는 취재원보호를 위한 영상표현이 과반수에 가까웠으며, 샷의 형태는 버스트샷과 함께 클로즈업을 많이 사용되었다. 즉흥적 인터뷰가 많아서 현장 조명을 이용하여 색을 만들었고, 고정된 촬영보다는 핸드헬드 기법을 이용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또한 와이드렌즈의 사용으로 화면의 깊이감은 나타나지 않았다.

■ **중심어** : | 영상표현 | 다큐멘터리 | 인터뷰 | 형태 | 색 | 움직임 | 깊이 |

Abstract

Visual images are very close to our living and we make decisions and choose behavioral options with the visual images on mass media. In current-affair documentary programs, interviews have potential effects that can change public opinions on important issues. Therefore, it's a consequence that the study examined how different expressions of visual images in documentary.

Using preceding research methods, this study focus on form, color, movement and depth of visual images. This study analyzed quantitatively all interview shots with 15 current-affair documentary programs from major TV stations such as KBS, MBC and SBS.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1) half of interview shots used the visual image expressions to hide interviewees' face according to the shield law, 2) choosing close-up shots in company with bust shots, 3) using natural lights and hand-held camera techniques for interviews, and 4) showing wide angles without depths of visual image.

■ **keyword** : | Visual Image Expression | Documentary | Interview | Form | Color | Movement | Depth |

I. 서론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대화라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이용하며, 이 과정에서 묻고 대답하는 행위를 한다. 이것이 바로 '인터뷰(interview)'이며, 우리는 인터뷰 행위를 통해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을 벗기게 된다[1]. 우리는 일상의 미디어 속에서도 쉽게 인터뷰를 접할 수 있다. 신문 기사나 텔레비전 뉴스 기사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인용하여 기사 내용을 전달하며, 다큐멘터리 제작자는 특정이슈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형성시키기 위하여 인터뷰를 사용한다.

이러한 인터뷰는 정보의 원천에 직접 접근한다는 점에서 강렬하다. 특히 영상을 통해서 표현되는 인터뷰는 실제 사례에 대한 취재원의 얼굴 표정, 몸짓 등을 직접 보여줌으로서 신뢰감이 생기고 사실성이 뛰어나 전달 효과가 크다[2]. 영상은 말로 전달하는 메시지보다 더 강한 동일화(identification)를 나타내며, 인간의 머릿속에 더 깊고 오래 각인된다. 그런데 영상은 영상 그 자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상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에 중요하다. 영상이 만들어내는 영향력은 그 어느 것보다 강하게 작용하며, 그 영향은 개인이나 집단을 구별하지 않는다[3].

2008년 한 방송사의 시사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인터뷰¹⁾가 방송된 이후로 거리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외치는 촛불집회 인파로 가득했고, 제작진에 대한 법적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미디어에서 제시되는 인터뷰 영상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전달하고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비판이나 실증적인 검증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터뷰가 사회적 파급효과와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인터뷰 영상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없었다. 특히 방송에서 보여지는 인터뷰 영상은 제작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영상표현법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영상을 보는 수용자에게 미칠 영향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인터뷰 영상에

대한 분석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시사다큐멘터리 인터뷰의 영상표현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유형을 구분하고, 인터뷰의 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실제로 시사다큐멘터리에서는 인터뷰 영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문적으로 영상표현 연구에서 인터뷰 영상표현의 기법에 대한 이론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저널리즘 실무 차원에서 방송사의 시사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제작자나 영상제작 관련자들이 향후 제작에 반영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상 관련 전공 학생들에게는 시사다큐멘터리에서 인터뷰의 영상 표현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 자료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영상표현에 대한 선행연구

영상은 화면의 구조인 프레임 안에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결합(articulated)하여 의미를 만들어낸다. 선행연구자들은 주로 영화 제작에 뿌리를 두고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영상 제작을 위한 지침서 등에서 이러한 구성요소들의 정리를 통하여 영상표현법을 연구하였다.

버거[4]는 대중매체 분석을 기호학적 분석,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정신분석학적 분석, 사회학적 분석 등으로 분류하였다. 그중에서 기호학적 분석은 일차적으로 영상 속에 의미가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기호학적인 분석은 통합적, 계열적 분석 유목으로 카메라 쇼트(camera shot), 카메라 앵글(camera angle), 편집기술(editing) 그리고 기호들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조명(light), 색상(color), 음악(music), 음향(sound) 등으로 분류했다.

러시아의 화가이자 교사였던 칸딘스키[5]는 영상에 대한 접근을 귀납적 방식을 통해 하였다. 그는 영상인식요소를 빛과 색상, 2차원 공간(two-dimensional field)인 화면구도(composition), 3차원 공간(three-dimensional field)인 화면의 깊이(depth)와 볼륨(volume), 그리고 시간(time), 동작(motion), 음향으로

1) 아래나 빈슨의 어머니 로빈 빈슨이 딸의 사망 원인이 인간광우병(vCJD)일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인터뷰

구분하였다.

셀비와 카우드리[6]는 미디어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해 미장센과 기술적 코드로 크게 구분했다. 그리고 기술적 코드를 카메라 앵글, 샷 크기(shot size), 구도, 포커스(focus), 조명, 색 등과 같이 세부 항목으로 분류했다.

체틀[7]은 칸딘스키의 영상인식요소에 근거하여 영상을 물리적 차원으로 분석하고 있다. 1차원은 빛과 색, 2차원은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지는 평면공간, 그리고 3차원은 X-축, Y-축, Z-축으로 이루어지는 입체공간, 4차원은 3차원 공간에서 T-축(시간축)이 개입된 동작이 이루어지는 시공간, 5차원은 4차원 공간에서 S-축(음향축)이 개입된 음향이 있는 시공간으로 영상 인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권중문[8]은 아날로그 TV 드라마와 HDTV 드라마 사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영상의 서사 구조와 연관시켜 각 장면을 계량화(quantification)가 가능한 실증적 영상분석을 시도하였다. 영상인식요소 중 색, 형태(shape), 깊이, 움직임(movement)을 분석유목으로 정하였다.

박덕춘[9]은 1차원 영역은 조명 영역, 2차원 영역은 촬영의 영역인 화면의 크기, 3차원 영역 또한 촬영의 영역으로 카메라워크(camera work), 카메라 앵글, 원근법(perspective), 시점(point of view) 등을 나타내며, 4차원 영역은 편집의 영역으로 몽타주편집, 스피드편집, 지속시간 등을, 5차원 영역은 음향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익희[10]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영상표현법을 다큐멘터리 영상제작에 과정에 적용하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정리하여 구분하였다. 영상인식요소에 대한 선행 연구[11][12]를 근거로 형태, 색, 움직임, 깊이를 대분류로 구분하고, 중분류(소분류)는 대분류 유목인 형태를 이미지의 크기(샷의 크기)와 카메라의 위치(카메라 앵글)로, 색은 색상(톤)과 명도(밝기)로, 움직임은 카메라의 움직임(카메라 워크, 삼각대사용 여부)로, 깊이는 피사계심도(포커스), 조명(입사방향)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이러한 영상표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분석틀과 그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영상표현법에 관한 주요 선행 연구

선행연구자	분석틀	영상표현법 구성 요소
Arther Asa Berger (1972)	기호학적 분석(통합적, 계열적 분석)	- 카메라 쇼트(camera shot) - 카메라 앵글(camera angle) - 편집기술(editing) - 조명(light), 색상(color) - 음악(music), 음향(sound)
Wasilly Kandinsky (1979)	귀납적 방식-물리적공간 차원 분석	- 빛(light)과 색(color) - 2차원공간(two-dimensional field: 화면구도(composition)) - 3차원공간(three-dimensional field: 화면의 깊이(depth)와 볼륨(volume)) - 시간(time) - 동작(motion) - 음향(sound)
Livingstone & Hubel (1988)	대뇌피질 세포반응 실험	- 형태(form) - 색(color) - 움직임(movement) - 깊이(depth)
Selby & Cowdery (1995)	기술적 코드 분석	- 카메라 앵글(camera angle) - 샷 크기(shot size) - 구도(composition) - 포커스(focus) - 조명(light), 색(color)
Herbert Zettle (1999)	물리적 차원	- 1차원(빛과 색) - 2차원(X-축과 Y-축의 평면공간) - 3차원(X-축, Y-축, Z-축의 입체공간) - 4차원(3차원 + T-축(시간축); 동작이 이루어지는 시공간) - 5차원(4차원 + S-축(음향축); 음향이 있는 시공간)
권중문 (2005)	선행연구 분석	- 형태(form) - 색(color) - 움직임(movement) - 깊이(depth)
박덕춘 (2006)	계열체 분석	- 1차원영역(조명) - 2차원영역(화면의 크기) - 3차원영역(카메라워크, 카메라 앵글, 원근법, 시점) - 4차원영역(편집영역-몽타주편집, 스피드편집, 지속시간) - 5차원영역(음향)
이익희 (2010)	문헌 분석	- 형태(이미지 크기, 카메라 위치) - 색(색상, 명도) - 움직임(카메라워크, 삼각대 사용) - 깊이(피사계심도, 조명)

2. 다큐멘터리 인터뷰의 영상표현

다큐멘터리 영상의 구성 요소는 '직접적 발화(direct address)', '보도화면(recently taped footage)', '인터뷰(interview)', '자료화면(file footage)'등으로 나뉜다 [13]. 이 중에서 인터뷰는 '다큐멘터리의 심장'이라 불리

며, 인터뷰는 개인의 증언으로 경험과 감정을 통해 설명의 권위를 주며, 의견의 개진, 설명, 해설, 주장, 진술을 통해 저널리즘적 가치를 구현하게 된다.

인터뷰 샷의 사이즈는 화면에서 피사체가 차지하는 비율로 구분하면 주로 미디엄샷(medium shot)으로, 인터뷰하는 사람의 상체에 대한 바스트 샷(bust shot)에서 웨이스트 샷(waist shot)이다. 화면 속의 인물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기 보다는 15도에서 45도 사이의 각도로 질문자를 응시한다. 이러한 영상표현법에서 인터뷰하는 사람은 얼굴의 한 쪽이 더 많이 보이지만, 그렇다고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지는 안 된다. 즉, 한 쪽 귀는 완전히 보이지만 반대쪽 귀는 거의 보이지 않도록 하면서 시선 앞쪽에 여백(eye room)을 유지한다 [14]. 하지만 최근 인터뷰를 위한 샷의 사이즈는 바스트 샷보다 드라마에서 주로 사용하는 타이트 바스트 샷(tight bust shot) 또는 클로즈 업(close up shot)으로 인터뷰하는 경우가 증가되고 있다.

또한 인물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물 배경 부분을 흑막 처리하거나, 역광을 강하게 조명을 설치하기도 한다. 심도차를 이용하여 인물에 포커스를 맞추고 배경은 아웃포커스를 사용하여 흐리고 보이는 영상표현법을 사용하는 경우 역시 빈번하다. 시사다큐멘터리에서는 현장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카메라를 삼각대에 고정하여 인터뷰하기보다는 핸드헬드(hand-held)기법을 이용하여 카메라를 들고 찍기로 인터뷰하는 경우가 많다.

다큐멘터리의 인터뷰에서는 취재원 보호와 관련하여 다양한 영상표현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15]에서는 취재원 보호를 언론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켜야할 가장 중요한 직업윤리 중의 하나로 꼽고 있으며, 취재원의 신뢰가 언론의 존립기반이라고 중요시 여긴다. 즉, 취재원이 어떠한 이유에서건 자신의 신분 노출이 되지 않기를 원하면 제작자는 취재원의 신분을 밝히지 않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취재, 제작과정에서 취재원이나 취재대상에 대한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자이크나 포커스 아웃 등의 영상 가공 기법의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다. 즉, 인물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카메라를 바닥에 내려

놓고 신체 일부분만 보이게 하는 비정상적 샷, 전화 그래픽 화면에 음성 변조된 인터뷰 등의 연출된 인터뷰 영상표현법이 증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방송된 시사다큐멘터리의 인터뷰 영상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영상표현과 관련된 연구문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문제1> 시사다큐멘터리에서 사용된 방송사간 인터뷰 분량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시사다큐멘터리 인터뷰의 영상표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연구문제2-1> 주로 사용되는 인터뷰 샷의 크기는 무엇이며, 방송사간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2> 인터뷰시 조명의 사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연구문제2-3> 인터뷰 촬영에서 화면의 움직임의 정도와 방송사간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4> 인터뷰 영상의 피사계심도 표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III. 연구 방법

1. 표본의 추출과 분석 과정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다큐멘터리의 장르는 다양하지만, 공공성에 기반을 두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저널리스트적인 접근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시사다큐멘터리는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뷰도 시사다큐멘터리의 인터뷰가 사회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사다큐멘터리 속에서 실제로 어떤 인터뷰 영상표현법이 사용되는가를 조사하기 위하여 지상파 3사에서 방송된 시사다큐멘터리로 정량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2009년 6월에서 9월까지 KBS <추적 60분>, MBC <PD수첩>,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방송되었던 시사다큐멘터리 중에서 각 방송사 해당 프로그램의 홈페이지에서 조회된 수가 많고 이슈가 된 소

제들을 [표 2]와 같이 각각 5편씩 선택하였다[10].

표 2. 인터뷰 분석 시사다큐멘터리 목록

방송사 프로그램	부제	방송일시
KBS 추적 60분	① - 신종플루, 대한민국 안전한가?	2009. 8.21
	② - 2009 장애인 인권보고서 '나는 시설을 거부한다'	2009. 8.14
	③ - 감세정책, 그리고 4대강, 나라살림 문제없나 - 1과 2의 경계, 2009 트랜스젠더 리포트	2009. 7.31
	④ - 교사 임용 사기, '이 목소리를 아십니까?' - 표준계약서 제정, 연예인 비극 끝나나?	2009. 7.10
	⑤ - 비정규직 제정 2년, 그들에게 희망의 출근은 없는가 - 한국전쟁 59년 '지워지지 않는 기억 6.25'	2009. 6.26
MBC PD 수첩	① - 2PM 재벌 사태가 남긴 것 - 기무사는 왜 그들을 미행했나?	2009. 9.15
	② - 신종플루 vs 학교 - 황산테러, 스물일곱 정아 씨의 잃어버린 얼굴	2009. 9. 1
	③ - 쌍용자동차, 운명의 10일 - 경찰 시민 폭행 사건, 그 후	2009. 8. 4
	④ - DDos 사이버대란 - 누가 비정규직을 거리로 내모나?	2009. 7.14
	⑤ - '기지촌 할머니, 그들에게 남은 것은' 잊혀진 이름, 기지촌 여성 - 청춘의 뒧, 불법 피라미드 고수익을 미끼로 한 꿈의 직장	2009. 6.23
SBS 그것이 알고 싶다	① - 미스터리,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 아버지와 딸은 공범이었나?	2009. 9.26
	② - 치르지 못한 장례식 ; 용산 참사, 그 후	2009. 9. 5
	③ - 두 시골마을의 끝없는 공포 ; 청산가리 살해 미스터리	2009. 8. 1
	④ -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싶다 ; 투시(透視, clairvoyance)	2009. 7.25
	⑤ - 신종플루, 인류 대재앙은 올 것인가?	2009. 6.20

선택된 프로그램들은 서울 인근 4년제 대학교의 영상 제작을 전공하는 학생 30명에게 한 프로그램 당 각각 2명씩 배정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인터넷 다시보기를 통하여 방송 분량 전체를 모니터링하도록 하였다. 우선 학생들에게 제시된 인터뷰 영상 분석지에 해당 프로그램의 제목, 부제, 방송일시를 기록하게 하였다. 정량적 분석을 위하여 총 방송시간, 인터뷰의 횟수, 각 인터뷰의

길이 등을 초 단위까지 적도록 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터뷰 한 사람들의 이름, 직책, 전문가 여부 등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인터뷰 질문내용과 대답 내용의 요점, 인터뷰 영상의 특징 등을 서술하도록 하였다.

2. 인터뷰 영상표현의 유형

인터뷰 영상을 형태(form)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지의 크기, 즉 샷 사이즈를 기준으로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샷 사이즈는 크게 일반적인 버스트 샷 정도의 인터뷰 샷과 클로즈업 샷으로 나뉠 수 있다. 시사다큐멘터리의 인터뷰 촬영과정에서는 인터뷰 전에 리허설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 없이 긴박한 상황에서 현장 인터뷰가 이루어지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사이즈로 제작되기 어렵다. 그리고 카메라의 위치에 따른 앵글에서도 큰 차이가 발견하기가 어렵다. 인터뷰 촬영은 대부분 취재원의 아이레벨(eye level)에 맞춰지기 때문에 앵글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인터뷰 영상의 색(color)은 정상톤을 사용한 경우와 특별한 색의 톤을 사용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명의 밝기에 있어서 하이키(high key)로 하였는가 아니면 로우키(low key)로 하였는가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현실적으로 시사다큐멘터리의 현장 인터뷰는 대부분 현장 조명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주로 조명의 양이 부족한 로우키로 보이는데, 이것은 의도된 영상 표현이라기보다는 어려운 현장상황이기 때문이다.

카메라워크를 많이 사용하는 다른 영상과는 달리 인터뷰의 영상은 인물에만 집중되기 때문에 특별히 카메라워크는 사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터뷰 영상의 움직임은 현장에서 카메라의 삼각대를 이용하여 고정할 것이나 아니면 핸드헬드로 촬영하여 영상에 움직임이 있는 가로 구별될 수 있겠다.

화면의 깊이(depth)에 대한 영상표현은 촬영에 있어서 망원렌즈를 사용하거나 피사체와의 거리 등을 조절하여 피사계심도차(depth of field)를 사용하여 비교적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딥포커스(deep focus)로 화면 전체의 포커스의 차이가 없게 만드는 것과 인물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주변을 아웃포커스(out focus) 처리하여 깊이를 느끼게 하는 영상표현으로 구분할 수 있

졌다.

시사다큐멘터리의 제작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반영하여 인터뷰에 사용된 영상표현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표 3]과 같이 분석 유형으로 샷의 사이즈(인터뷰 샷/클로즈업 샷), 조명의 톤(정상톤/기타 톤), 삼각대 사용여부(고정/핸드헬드), 피사계심도차(딥포커스/아웃포커스) 등으로 구분하여 인터뷰 영상의 분석지를 사전에 제작하였다 [10].

표 3. 인터뷰 영상표현의 분석 유형

형태		색		움직임		깊이	
샷 사이즈		조명톤		삼각대 사용		피사계 심도차	
버스트 샷	클로즈업 샷	정상 톤	기타 톤	고정	핸드 헬드	딥 포커스	아웃 포커스

3개 방송사에서 선택한 각각 5개의 시사다큐멘터리 인터뷰는 회당 평균 60여 차례로 총 948개의 인터뷰 샷을 정량 분석하였다. 이러한 인터뷰 영상을 표본으로 통계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방송 3시간 영상표현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ANOVA분석과 사후검증으로 Tukey를 사용하였다.

IV. 분석 결과

1. 방송 시간과 인터뷰

분석 결과 [표 4]와 같이 방송 3사의 시사다큐멘터리 평균 방송시간은 52분 8초이며, 이 중 인터뷰 시간은 평균 17분 30초였다. 즉, 전체 방송시간에서 34%가 인터뷰 시간으로 할애된 것이다. 횟수로는 프로그램 당 평균 63회의 인터뷰가 나왔으며, 각 인터뷰는 평균 17초 동안 진행되었다.

전체 방송시간에서 인터뷰가 차지하는 비율은 방송 시간에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KBS-36%, MBC-33%, SBS-32%). 인터뷰 샷에서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한 특정샷(인물 모자이크 처리, 신체 일부분 샷, 전화인터뷰, 그래픽 화면, 음성변조 등)을 사용한 비중은 3개 방송사 평균 46%로 상당히 많이 분량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KBS(33%)가 MBC(54%)와 SBS(51%)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더 적게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4. 방송시간과 인터뷰 분량의 비교

구분		시간		인터뷰	
		전체 방송시간	인터뷰 시간 합계	횟수	취재원보호 샷 횟수
KBS	①	57'52"	20'21"	56	13
	②	57'51"	19'59"	79	32
	③	58'08"	18'44"	53	3
	④	59'07"	25'01"	81	52
	⑤	58'58"	20'37"	67	9
평균		58'25"	20'57" (36%)	67	22 (33%)
MBC	①	45'39"	13'50"	44	21
	②	45'33"	13'05"	53	25
	③	47'53"	17'05"	62	32
	④	44'58"	17'15"	54	19
	⑤	45'55"	13'19"	56	49
평균		46'00"	14'55" (33%)	54	29 (54%)
SBS	①	51'18"	20'40"	91	61
	②	51'16"	18'46"	71	37
	③	52'46"	20'27"	74	53
	④	54'54"	10'02"	54	8
	⑤	51'39"	13'14"	53	17
평균		51'59"	16'38" (32%)	69	35 (51%)
총 평균		52'08"	17'30" (34%)	63	29 (46%)

표 5. 방송시간 취재원보호 샷 비율의 ANOVA 분석

방송사	사례	평균	표준편차	F[2,12]	P
KBS	5	33.0	23.53	1.293	.310
MBC	5	54.0	20.04		
SBS	5	51.0	23.51		

이러한 수치의 의미는 시사다큐멘터리에서 이루어진 인터뷰의 과반수 가량은 취재원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영상표현에서도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화면에 모자이크를 하거나 그래픽을 사용하는 효과 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KBS가 상대적으로 수치가 낮은 것은 KBS가 다른 방송사에 비해 취재원을 밝힌 인터뷰를 많이 했으며, 추가적으로 분석한 구체적인 내용분석을 보면 전문가 인터뷰가 타 방송사에 비해서 많았기 때문이다.

2. 인터뷰의 영상표현

2.1 영상표현의 형태

우선 인터뷰의 영상표현을 분석을 형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형태는 이미지의 크기, 즉 카메라 샷의 분석이며,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샷을 일반적인 인터뷰 인물 사이즈인 버스트 샷(BS)과 좀 더 인물에 집중하도록 사이즈를 타이트하게 처리한 클로즈업 샷(CU)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 결과 [표 6]에 보는 것과 같이 전체 인터뷰 중에서 버스트 샷의 사이즈가 방송 3사 평균 81%이고, 클로즈업 샷(CU)의 사용이 평균 19%로 나타났다. 즉, 촬영의 1/5가량의 인물 사이즈가 타이트하게 처리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큐멘터리에서 인터뷰 촬영은 버스트 샷으로 촬영되지만, 오히려 시사다큐멘터리에서 인물의 인터뷰가 타이트하게 촬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가적 조사에서 타이트한 샷의 인터뷰는 개인적 감정이 개입된 인터뷰가 주를 이룬다.

표 6. 방송사별 인터뷰 샷 사이즈

구분	KBS		MBC		SBS		전체 평균	
	BS	CU	BS	CU	BS	CU	BS	CU
①	40	16	34	10	81	10	-	-
②	60	19	37	16	65	6	-	-
③	47	6	49	13	60	14	-	-
④	67	14	36	18	47	7	-	-
⑤	52	15	49	7	39	14	-	-
평균	53	14 (21%)	41	13 (24%)	58	11 (16%)	51	12 (19%)

표 7. 방송시간 클로즈업 샷 비율의 ANOVA 분석

방송사	사례	평균	표준편차	F[2,12]	P
KBS	5	20.6	6.88		
MBC	5	24.0	7.87		
SBS	5	15.5	7.16	1.752	.215

전체 인터뷰 샷 중에서 클로즈업 샷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통계 분석에서 방송시간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으므로 특별히 타이트한 샷을 많이 이용하는 방송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영상표현의 색

영상표현에서 색은 색상과 명도로 구분하여볼 수 있으나, 실제 시사다큐멘터리의 인터뷰에서 특별한 조명과 의도적 명도를 사용하여 촬영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즉흥적 인터뷰에서 인물에게 조명을 사용하거나 색을 만들어내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장 조명을 사용하더라도 정상적인 톤을 사용한 경우와 그 외의 톤을 사용한 경우로 크게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표 8]과 같이 방송 3사 공통으로 정상톤을 주로 사용하였고 극히 일부분에서 기타톤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시사다큐멘터리의 인터뷰 영상의 표현에서 색은 인위적인 것보다 현장에 충실한 조명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 8. 조명의 톤과 인터뷰

구분	KBS	MBC	SBS	평균
평균 인터뷰수	67	54	69	63
정상톤	66	52	67	61
기타톤	1	2	2	2

2.3 영상표현의 움직임

영상표현의 움직임을 보기 위한 분석에서는 [표 9]와 같이 전체 인터뷰중 핸드 헬드를 사용한 촬영은 3사 평균 37%로 높게 나왔다. 영상 표현에서 핸드 헬드 기법의 사용에 대해선 통계적으로 방송시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못했으나, 핸드 헬드로 촬영한 횟수를 방송사별로 살펴보면(KBS-27%, MBC-39%, SBS-44%), 이 수치는 앞서 KBS가 전문가 인터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고정 샷을 많이 사용했다는 결과와 일치하게 나왔다.

표 9. 인터뷰 샷의 움직임

구분	KBS		MBC		SBS		전체 평균	
	사용	미사용	사용	미사용	사용	미사용	사용	미사용
①	44	12	34	10	26	65	-	-
②	47	32	34	19	33	38	-	-
③	43	10	29	33	56	18	-	-
④	60	21	31	23	45	9	-	-
⑤	55	12	38	18	33	20	-	-
평균	49	18 (27%)	33	21 (39%)	39	30 (44%)	40	23 (37%)

표 10. 방송시간 샷 움직임 비율의 ANOVA 분석

방송사	사례	평균	표준편차	F[2,12]	P
KBS	5	26.8	9.46	1.475	.268
MBC	5	38.9	11.33		
SBS	5	43.5	22.03		

2.4 영상표현의 깊이

피사계심도차를 이용한 영상표현은 3사 공통으로 아웃포커스된 영상이 극히 일부분에서 사용되었다. 따라서 시사다큐멘터리에서는 다른 다큐멘터리와 달리 인물에 대한 화면의 깊이를 주기 위하여 피사계심도차를 이용하여 아웃포커스된 영상표현법은 거의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인터뷰 샷의 포커스

구분	KBS	MBC	SBS	평균
평균 인터뷰수	67	54	69	63
포커스	65	51	67	61
아웃포커스	2	3	2	2

V. 결론 및 논의

인터뷰는 다큐멘터리를 보다 진실감 있고, 신뢰감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이며, 거짓 없이 그대로 시청자에게 정보를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이다.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는 정보뿐만 아니라 더욱 심오한 진실(reality)에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드는 훌륭한 도구이다[16]. 특히 영상으로 제작된 인터뷰는 화면 안의 구성 내용들이 하나의 형태를 이루게 되는데, 제작자는 화면 속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영상표현으로 영상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 이미지를 바라보는 수용자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된다.

우선, <연구문제1>의 시사다큐멘터리에서 인터뷰가 차지하는 분량에 대한 정량적 분석에서 3개 방송사의 주요 시사다큐멘터리에서 인터뷰는 평균적으로 전체 시간의 34%를 차지하고, 63회가 나왔다. 특히 시사다큐멘터리의 특성상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한 영상표현이 평균 46%나 차지하였으며, 방송시간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KBS보다 MBC, SBS가 더 많이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한 영상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2>의 시사다큐멘터리에서 인터뷰의 영상표현법에 대해서는 분석 유형으로 형태, 색, 깊이, 움직임 기준으로 정량분석을 시도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영상표현 형태에 대한 분석은 인터뷰 샷의 크기와 관련이 있으며, <연구문제2-1>의 시사다큐멘터리의 인터뷰 사이즈는 방송 3사 평균 81%가 버스트 샷이고, 19%가 클로즈업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사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방송사들은 시사다큐멘터리에서 인터뷰 영상표현의 사이즈는 유사하며, 1/5가량의 인터뷰를 얼굴 표정 중심으로 타이트하게 촬영한 것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결과들은 샷의 크기와 관련된 선행연구들[17-19]에서 샷의 크기가 클로즈업될수록 수용자가 영상에 더 친근감을 갖고, 주의(attention)하며, 감정(emotion)이 이입된다는 영상표현법이 시사다큐멘터리에서 인터뷰시에도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색을 나타내기 위한 영상표현은 조명의 사용과 관련이 있다. <연구문제2-2>의 시사다큐멘터리 조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터뷰를 위해 현장 조명을 사용하였으며, 특별한 조명을 설치한 경우는 극히 일부분에서만 나타났다. 이것은 시사다큐멘터리는 장르의 특성상 인터뷰 대상자에 대한 즉흥적인 뉴스보도식 인터뷰가 주를 이룬다. 따라서 시사다큐멘터리의 인터뷰 촬영은 여러 대의 조명을 설치하기보다는 쉽게 이동이 가능한 썬건(sun gun) 조명이나 현장 조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셋째, <연구문제 2-3>의 영상표현의 움직임은 인터뷰 영상에서는 카메라를 삼각대에 고정시켜 촬영한 것과 핸드헬드로 자연스런 움직임을 준 것이 방송 3사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이 평균 6.4의 비율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다큐멘터리의 인터뷰는 사전에 인터뷰 대상자 목록을 완성하고, 인터뷰의 장소도 미리 정하여 주변 환경이나 조명과 소음, 배경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20]. 하지만 시사다큐멘터리는 그 소재가 시의성이 있기 때문에 인터뷰의 장소나 환경을 고려

하기 어려우며, 즉흥적으로 핸드헬드 촬영을 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연구문제2-4>의 화면의 깊이에 대한 영상표현은 인터뷰에서는 피사계심도차를 이용한 아웃포커스를 사용할 수 있다. 분석결과 극히 일부분의 인터뷰에서만 아웃포커스가 나타났다. 이것은 시사다큐멘터리의 인터뷰에서는 화면의 포커스 유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촬영시에 카메라의 광각렌즈를 사용하여 딥포커스를 유지하기 때문에 화면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심도차를 볼 수 있는 영상표현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시사다큐멘터리 인터뷰의 영상표현은 샷의 사이즈는 주로 버스트 샷이지만, 클로즈업 샷도 다섯 번에 한 번꼴로 사용하였다. 조명은 특별한 조명을 설치하지 않고 현장 조명을 거의 이용하며, 인터뷰시 카메라를 고정시키지 않고 40%가량은 카메라를 들고 찍고, 포커스에 대한 부담으로 피사계심도에 의한 화면의 깊이를 거의 표현하지 않았다. 아울러 시사다큐멘터리 인터뷰에서는 취재원보호의 영상표현이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는 실제 시사다큐멘터리 인터뷰 샷들의 영상을 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현재 방송사들의 시사다큐멘터리에서는 인터뷰 영상의 제작에 있어서 어떤 영상표현법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밝혀냈다. 이러한 결과는 학문적으로 후속 인터뷰 영상표현 연구의 선행연구로 제시될 수 있으며, 영상을 전공하는 학생이나 산업적으로 시사다큐멘터리 제작현장실무에서 인터뷰 영상표현법의 이론적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하지만 정량적 분석의 한계 때문에 제작자의 영상표현에 대한 의도를 수치로 나타내는데 그치고 말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정량적 분석과 함께 제작자의 심층 인터뷰나 설문을 통한 정성적 분석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인터뷰 영상표현을 분석하는데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인터뷰 영상의 표현의 차이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하겠다.

참 고 문 헌

- [1] 이만훈, 인터뷰의 모든 것, 랜덤하우스 코리아, 2008.
- [2] F. Lopez, Personnel interviewing, McGraw-Hill, 1975. / 강대인·김우룡·홍기선, 방송제작론, 나남, 1988.
- [3] 박치형, 텔레비전 영상과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 [4] A. A. Berger, Media analysis techniques. 1972 / 한국사회언론연구회 매체비평분과 역, 대중매체비평의 기초, 이론과 실천, 2000.
- [5] W. Kandinsky, Point and line to plane. Dover Publications, 1979. / 차봉희 역, 점·선·면·칸딘스키 예술론, 열화당, 2000.
- [6] K. Selby and R. Cowdery, How to television, Macmillan publishers Limited, 1995.
- [7] Zettle, H. Sight, sound, motion: Applied media aesthetics(3rd ed.), Wardworth Publishing Co., 1999 / 박덕춘·정우근 공역, 영상제작의 미학적 원리와 방법, 커뮤니케이션북스, 2000.
- [8] 권중문, "TV드라마의 영상표현에 대한 연구", 사 진학회지, 12권, pp.98-106, 2005.
- [9] 박덕춘, "매체의 특성이 영상콘텐츠의 표현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현대사진영상학회, 9권, pp.7-21, 2006.
- [10] 이익희, "시사다큐멘터리의 영상표현방식과 예시 구성방식이 수용자의 이슈 지각 및 정보 습득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11] P. M. Lester, Visual Communication, TomsonLearning, 2003. / 임영호 역, 영상커뮤니케이션, 청문각, 2006.
- [12] M. Livingstone and D. Hubel, Segregation of form, color, movement, and depth: Anatomy, physiology and movement. Science, Vol.240, pp.740-749, 1988.
- [13] 이종수, "뉴스 다큐멘터리의 서사미학과 영상미학: 베트남전쟁에 관한 CBS뉴스 다큐멘터리 분

- 석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3권, pp.70-98, 1996.
- [14] 서현석, “다큐멘터리 유형: 인터뷰 쇼트의 기호학적 기능과 권력관계”. 프로그램텍스트, 10권, pp.139-167, 2004.
- [15] 한국방송,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KBS, 2007.
- [16] 강승엽, “TV 다큐멘터리 영상물에 있어서 나레이션과 인터뷰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현대사진영상학회, 4권, pp.85-94, 2001.
- [17] B. Reeves and C. Nass, The media equation: How people treat computers, television, and new media like real people and plac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 [18] D. W. Griffith, What I demand of movie stars. In H. M. Geduld, (Ed.), Focus on D. W. Griffith, Prentice- Hall, 1971.
- [19] W. Benjamin, “Das Kunstwerk im Zeitalter seiner technischen Reproduzierbarkeit, in: Illuminationen. Ausgewählte Schriften (ausgewählt von Siegfried Unseld)”. Surhkamp, 1977, pp.136-169, 1935.
- [20] A. Rosenthal, Writing, directing and producing documentary films and video, 1996; 안정임 역, 다큐멘터리제작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2.

저자 소개

이 익 희(Ikheui Lee)

정회원



- 2010년 2월 :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언론학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극동대학교 영상제작학과 교수

<관심분야> : 영상콘텐츠, 영상제작, 방송, 영화, 3D